



## 삼국시대 : 등잔 추정 이형토기 수레바퀴 모양 토기 등잔 ③

이형토기는 상형토기(象形土器)라고도 하는데, 이들 가운데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또한 잔(또는 등잔)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적인 모습은 굽다리 위에 수레바퀴가 양측에 놓이고 그 사이에 활 모양이나 'U'자 모양의 잔을 마주보게 쌍으로 붙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잔이 때로는 컵이나 뿔잔[角杯], 또는 작은 항아리 모양을 띠고 있어, 이를 근거로 술이나 음료를 담거나 마시는 기능을 하였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덧붙여 무덤에서 출토되고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실어 나르는 장송(葬送)의 제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토기의 수레바퀴를 보면 바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 바퀴 축에 구멍을 뚫고 굽대를 연결하여 돌아가도록 만든 것도 있다. 그리고 바퀴는 바퀴 축에서 방사(放射狀)로 사다리꼴 또는 사다리꼴 모양의 구멍[透孔]을 내어 바퀴살을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형태로서 사진 ①은 보물 제637호로 지정된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수레바퀴모양토기이다. 정확한 출토지는 알 수 없지만 의령군 대의면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가야토기이다. 나팔상의 굽다리 위에 활 모양의 원통 잔을 얹고, 잔 위에는 고사리 모양의 뿔 2개를 달았으나 하나는 결실되었다. 원통 잔 좌우에는 수레바퀴를 장식하였으며, 굽다리에는 가늘고 긴 구멍을 아래위에 4개씩 교차하여 뚫었다. 그리고 수레바퀴에는 사다리꼴 구멍을 6개씩 내어 바퀴살을 표현하였으며, 회흑색 경질(硬質)의 토기로서 가야토기 전성기인 5세기경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것으로서 사진 ②의 경상남도 함안군 말산리 34호분에서 출토된 수레바퀴모양토기를 들 수 있다. 사진 ①처럼 고사리 모양과 같은 장식적 요소는 없지만, 이 또한 회흑색 경질의 토기로서 굽다리에 장방형의 구멍을 앞뒤로 2개 뚫고 바퀴에는 가늘고 긴 장방형의 구멍을 8개씩 내어 바퀴살을 표현하였다. 토기의 잔 입구 아랫부분이 일부 파손되어 복원 수리되었다.

사진 ③은 호림박물관 소장의 수레바퀴모양토기이다. 출토지를 알 수 없는 한 쌍으로 보이는데, 사진 ①과 사진 ②의 활 모양 원통 잔 가운데 부분에 입구가 다소 벌어진 나팔모양의 잔을 하나 더 만든 형태를 띠고 있다. 굽다리에는 장방형의 구멍이 앞뒤로 2개 뚫려있으며, 바퀴에는 양쪽으로 사다리꼴 구멍을 7개씩 내어 바퀴살을 표현하였다.


사진 ①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삼국시대-가야(伽倻) 5세기// 높이 18.5cm, 너비 24cm//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출토 추정// 보물 제637호//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57쪽.

사진 ②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삼국시대-가야(伽倻) 5세기// 높이 15.7cm// 경남 함안군 말산리 34호분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57쪽.

사진 ③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삼국시대-신라(新羅) 5세기// (좌)높이 15.3cm// 출토지 모름// 호림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56쪽.

사진 ④, 사진 ⑤, 사진 ⑥, 사진 ⑦은 앞의 사례와 달리 모두 굽다리 위에 잔을 'U'자 모양으로 앉힌 후 양 옆에 두 개의 수레바퀴를 붙여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잔 상단에는 한 줄의 돈을 띠를 돌렸으며, 사진4처럼 잔의 하단부에 '∞'자 모양의 띠를 돌려 두개의 잔을 서로 감고 있는 모습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수레바퀴는 고정되어 있으며, 바퀴 축을 중심으로 각각 4개·10개·9개·8개의 바퀴살을 만들어 서로 대칭이 되도록 하였다. 굽다리에는 사다리꼴이나 장방형의 투공을 내었다.

그리고 사진 ⑧은 호림박물관 소장 자료로서 수레바퀴모양토기로서는 다소 투박한 느낌을 준다. 바퀴가 굽다리 양쪽 옆이 아닌 위에 올라붙은 것이 특징적이며, 빨잔의 받침으로 사용되어서인지 잔의 밑 바닥 부분이 뚫려 있다. 수레바퀴모양토기의 과도기적 형태를 띠는지는 모르지만, 바퀴의 바퀴살이 아래쪽에는 생략되고 위쪽에만 사다리꼴 투공이 4개 표현되어 있다. 바퀴는 접시처럼 생겨 밖으로 살짝 휘어져 있으며, 잔 부분에 둥근 띠 1줄이 돌고 그 밑에 파상문(波狀紋)이 새겨져 있다. 굽다리는 2단으로 구획되었으며, 단 가운데에 2줄의 둥근 띠를 두르고 아래위로 장방형의 투공을 내어 서로 엇갈리게 하였다.

사진 ⑨는 굽다리에 빨잔을 얹고 양쪽에 수레바퀴를 부착한 모습을 하고 있다.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 자료인데, 빨잔의 꼬리부분이 고사리 모양으로 말려있고 잔 입구 쪽에는 2조의 문양 띠가 둘러져있다. 문양은 날카로운 새김용 도구를 써서 두 개의 침선(沈線)을 돌린 후 내부에 사격자문(斜格字紋)을 새겨 넣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빨잔은 김해·창녕·부산·달성 등지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부산 북천동 1호분에서는 빨 끝부분에 말 얼굴을 조각한 특이한 형태의 빨잔이 한 쌍 출토되기도 하였다. 빨잔에 대해서는 북방 유목민족이나 이집트 사산조 페르시아,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비교하여 그 문화적 연원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1988
  -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④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삼국시대-가야(伽倻)// (좌)높이 15.7cm, (우)높이 16.2cm, 지름 11.2 cm// 경남지역 출토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정완·이주현 지음, <<철의 왕국 가야(伽倻)>>, 국립중앙박물관, 2005, 68쪽.  
 사진 ⑤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삼국시대-가야(伽倻) 5세기// 높이 14.5cm// 출토지 모름// 호암미술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56쪽.  
 사진 ⑥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삼국시대-신라(新羅) 5-6세기// 높이 14.2cm, 입지름 5.2cm, 밑지름 8.7cm// 출토지 모름//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217쪽.  
 사진 ⑦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삼국시대-가야(伽倻)// 높이 15.1cm, 바닥지름 9.5cm, 입지름 3.6cm, 굽 높이 5.5cm// 출토지 모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 ⑧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삼국시대-가야(伽倻)// 높이 16.9cm 밑지름 10.5cm// 출토지 모름// 호림박물관 소장  
 사진 ⑨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삼국시대-가야(伽倻) 5-6세기// 높이 17.1cm, 입지름 4.6cm, 밑지름 10.3cm// 출토지 모름//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216쪽.